2024 년 8 월 1 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Market 김지현** jeehyun12@kiwoom.com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미 증시, 비둘기파적이었던 7 월 FOMC 에 급등

##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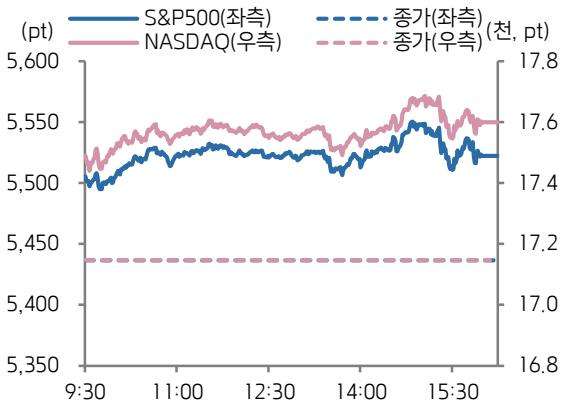
31 일(수) 미국 증시는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보였던 7 월 FOMC 및 그에 따른 9 월 인하 기대감 재확산 등으로 미 10 년물 금리가 4.0%대까지 하락한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1.1%)의 CAPEX 증가 소식, AMD(+9.0%)의 호실적 등으로 엔비디아(+12.8%) 등 AI 주식들의 동반 강세에 힘입어 큰 폭 반등(다우 +0.2%, S&P500 +1.6%, 나스닥 +2.6%).

7 월 FOMC 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 지난 7 월 중 ECB 포럼, 상하원 청문회에서 언급했던것과 유사하게, 인플레이션이 최근 수개월간 2% 목표를 향한 추가 진전이 있었으며, 2 분기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자신감을 키웠다고 진단. 무엇보다 이전 회의에서는 특정 회의에서의 금리인하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9 월 금리인하가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고 언급하는 등 시장참여자들에게 사실상 9 월 인하 시그널을 전달. 또 9 월 포함해 향후 회의에서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고용시장과 인플레이션 예상 밖으로 둔화된다면 연준은 이에 대응할 준비가 있다고 설명.

미국의 7 월 ADP 민간 신규고용은 12.2 만건으로 전월(15.5 만건) 및 컨센(14.7 만건)을 하회하는 쇼크를 기록. 7 월 임금증가율도 4.8%(YoY)에 그치면서 3 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 ADP 측은 현재의 노동시장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서 연준의 2% 물가 목표 도달에 동조하고 있다는 식의 입장을 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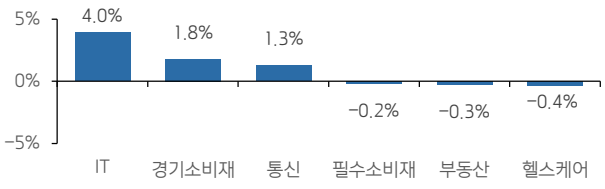
BOJ 는 7 월 금융정책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 인상했으며, 국채 매입규모도 2026 년 1 분기까지 월 3 조엔으로 축소키로 결정. 동시에 이들은 장기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에는 매입액을 다시 높이는 등 민첩하게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테이퍼링 계획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힘. 우에다 BOJ 총재는 현재의 경제 및 물가 전망이 실현될 경우 통화 완화 수준을 조정할 것"이라며 "금리 0.50%를 상한선으로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다"고 언급. 또 향후 금리 인상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할 것이라면서 이번 금리 인상으로 물가가 둔화될 것이라고 진단.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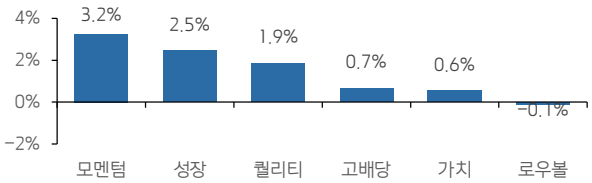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지수

| 주식시장 | | | 외환시장 | | |
|---|---|---|---|---|---|
| 지수 | 가격 | 변화 | 지수 | 가격 | 변화 |
| 코스피 | 2,770.69 | +1.19% | USD/KRW | 1,371.22 | -0.96% |
| 코스피 200 | 380.49 | +1.5% | 달러 지수 | 104.02 | -0.51% |
| 코스닥 | 803.15 | -0.08% | EUR/USD | 1.08 | +0.04% |
| 코스닥 150 | 1,338.75 | -0.31% | USD/CNH | 7.23 | -0.01% |
| S&P500 | 5,522.30 | +1.58% | USD/JPY | 149.90 | -0.05% |
| NASDAQ | 17,599.40 | +2.64% | **채권시장** | | |
| 다우 | 40,842.79 | +0.24% | 국고채 3 년 | 3.000 | +0.6bp |
| VIX | 16.36 | -7.52% | 국고채 10 년 | 3.057 | +0.2bp |
| 러셀 2000 | 2,254.48 | +0.51% | 미국 국채 2 년 | 4.258 | -10.1bp |
| 필라. 반도체 | 5,233.18 | +7.01% | 미국 국채 10 년 | 4.030 | -11bp |
| 다우 운송 | 16,083.86 | +0.44% | 미국 국채 30 년 | 4.303 | -9.2bp |
| **유럽, ETFs** | | | **원자재 시장** | | |
| Eurostoxx50 | 4,872.94 | +0.66% | WTI | 78.59 | +0.87% |
| MSCI 전세계 지수 | 814.16 | +1.59% | 브렌트유 | 80.72 | +2.66% |
| MSCI DM 지수 | 3,571.58 | +1.63% | 금 | 2493.8 | +0.84% |
| MSCI EM 지수 | 1,084.77 | +1.23% | 은 | 29.19 | +0.85% |
| MSCI 한국 ETF | 66.55 | +3.15% | 구리 | 419.55 | +0.45% |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 | |
|---|---|
|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 MSCI 한국 지수 ETF 는 +3.15%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2.19%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82%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66.7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
| **주요 체크 사항** | 1. 7 월 FOMC 는 9 월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시장예상에 부합하는 수준<br>2. 기술주 반등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빅테크 실적을 소화하며 AI 고점 논란 해소 과정 필요<br>3. 한국 수출 발표 이후 방산, 조선, 자동차, 화장품, 음식료 등 수출실적주 주가 흐름이 중요 |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7 월 FOMC 는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하고 9 월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시장예상에 부합하는 수준. 회의 직후 Fed Watch 상 9 월 25bp 인하 가능성 우세, 50bp 인하 가능성은 소폭 상승했고, 그동안 조정폭이 컸던 기술주의 반등 명분으로 작용.

9 월 50bp 인하 실현 시 경기 침체 시그널, 미일 금리차 축소로 인한 엔화 강세 심화 유발하며 리스크 오프 요인으로 작용할 것. 그러나 전일 파월의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50bp 인하를 당장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발언, 고용지표에 따라 보험성 금리인하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스탠스 유지했기 때문에 25bp 인하 컨센서스의 급격한 조정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금요일에 발표될 고용보고서에서 신규고용 컨센서스 17.5 만명 (전월 20.6 만명)으로 하회 시 침체 우려, 50bp 인하 가능성 일부 반영할 수 있음.

나스닥은 고점대비 10% 하락하며 조정장 국면 진입 초입에서 반등에 성공. 다우와 러셀지수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것은 물가 및 고용지표 둔화 추세, 9 월 금리인하 및 경기연착륙 기대감 등이 유효했던 것에 기인.

기술주 반등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빅테크 실적을 소화하며 AI 고점 논란이 해소되는 과정이 필요. 즉 '고객사인 빅테크의 AI 매출 성장률 둔화 및 과도한 CAPEX 집행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우려 vs 칩 제조사들의 AI 칩 매출 가이던스 상향 지속' 의견 대립 속 아직 이익사이클의 피크 아웃과 공급과잉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판단. 올 하반기까지 반도체 업종이 주도주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시각에는 변함없으나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국면이기 때문에 보수적 접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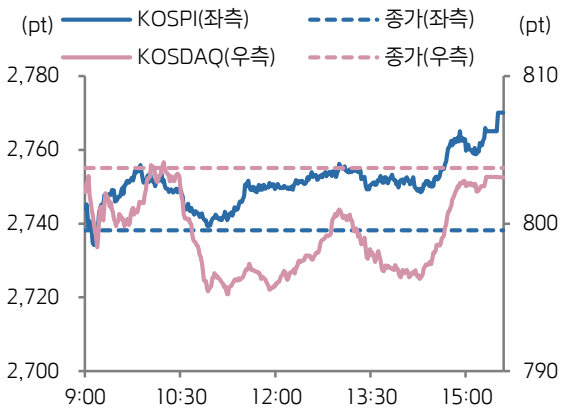
31 일(수) 국내증시는 장중 경계심리를 높였던 BOJ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소화하며 원달러 환율 하락 안정, 외국인 순매수, 삼성전자 2 분기 실적 및 반도체 관련 호재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 (KOSPI +1.19%, KOSDAQ -0.08%)

금일에는 비둘기파적이었던 FOMC, 고용지표 둔화, 엔/달러 추가 강세 제한 등 위험선호심리 확산에 힘입어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업종단에서는 금일 한국 수출 발표 이후 방산, 조선, 자동차, 화장품, 음식료 등 수출실적주 주가 흐름이 중요. 반도체는 엔화 강세,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우려 선반영 인식, 미국 수출규제 대상에서 동맹국 제외 보도에 선제적으로 반등을 보인 가운데 엔비디아 급등, 메타 25 년 CAPEX 상향 언급 등이 추가 강세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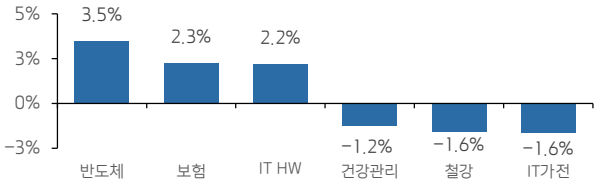
미 정치 불확실성 및 대중국 수출규제 강화, 엔화의 급격한 강세로 인한 일본 테크주 차익실현 등 7 월 말 반도체 약세 요인 일부 해소. 엔/달러 환율은 9 월 금리인하 시그널을 보낸 FOMC 회의 이후 150 엔대에서 149 엔대로 강세. BOJ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정책금리를 현재 0.0~0.1%에서 0.25%로 15bp 인상을 결정. 전일 일본 언론에 선제적으로 보도되어 시장예상에 부합한 결과였으며 엔/달러 환율 단기 상단을 150 엔선에서 확인했다고 판단.

##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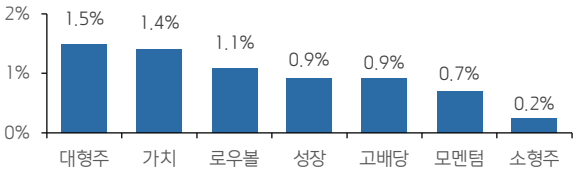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7 월 31 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